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1회)

高永煥

國際電信에 凶報를 誤傳함으로 因하여 一時 舉世의 耳目을 驚愕케 하든 現時 北京大學 教授 中 一大明星이라 할 만한 럿셀氏는 世人의 既知하는 바와 가치 英國의 一 名門巨族의 後裔외다. 卽 그의 父親은 子爵이오 그의 祖父는 穀物條例 廢止運動으로 因하여 英國政界가 可謂 쥔렌마의 難關에 싸진 一八四〇年代에 二次나 首相의 重任을 經歷한 名門의 後裔이외다.

그는 屈指의 數學家, 哲學者로 캠부리지大學에서 敎鞭을 多年間 잡다가, 저 一九一四年 天下 大動亂이 勃發한 後로는 忽然히 現代文明의 만흔 缺陷에 對하여 深省大覺함으로 그는 講壇의 學問的 敎鞭을 더지고, 街路上의 革命的 說法家로 改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講壇을 辭退함과 同時에 頑冥한 軍事官憲의 黑表에 加入하게 되야 乃終에는 저 無慈悲한 英國政府의 暴壓下에서 鐵窓生活까지 맛보았습니다.

럿셀氏는 人間生活의 基本되는 衝動을 所有衝動과 創造衝動의 二種으로 分類하셨습니다. 卽 그의 所論을 簡言하면—

『所有衝動은 獨占的이며 侵略的이며 破壞的이오, 創造衝動은 貢獻的이며 共有的이며 建設的이니, 前者는 死로 誘引하는 衝動이오, 後者는 生으로 案內하는 衝動이다. 前者를 體現식이는 것은 國家, 財産, 軍隊, 戰爭 等이오, 後者를 體現식이는 것은 藝術, 宗教, 科學, 發明 等이다.

現世의 政治, 軍隊 및 産業制度는 各 個人에게 對하여 그들 自身이 目的치 안는 目的을 課擔케 하며, 그들 自身이 意志치 안는 意志를 強要함으로 그의 衝動—특히 創造衝動의 自然的 發動을 妨害하여, 一面으로는 그를 더욱~破壞的으로 傾斜케 하고, 他面으로는 人間生活을 더욱~無氣力하게 하며 萎微沈滯케 한다. 그럼으로 所謂 多少間 才能있고 活力있는 者치고는 許多히 所有衝動의 捕虜가 되야 空然히 他를 劫奪하라고 하며 蹂躪하라고 한다. 그런 結果 外部的 表現으로는 爭鬪, 征服, 反抗, 逆使로 되고, 內部的 潛在로는 冷酷, 憎惡, 反感, 分裂로 된다. 今次的 世界大戰亂의 一因도 亦是 이에 있다.』고 합니다. 一言으로 弊之할 것 같으면, 럿氏는 稀世出의 哲學者, 社會革

命家인데 英國가치 頑牢한 帝國主義 黃金萬能主義國에서 如斯히 偉대한 社會革命家を 産出하게 된 것은 英國史上의 一大 異彩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의 著書는 頗多한 中 社會改造의 原理는 玆氏의 精神的 革命 後의 一大 代表作이라 할 만한 것이외다. 더욱이 同書 中에 一篇인 財産論으로 말하면 氏는 그 獨特한 銳敏한 筆鋒을 가지고 徹底한 批判下에서 쓴 것이외다. 그럼으로 余는 먼저 이 財産篇을 全譯한 後 諸般 事情—紙面의 餘白과 時間의 餘裕가 許諾할 것 가트면, 佛蘭西의 社會革命家인 『푸르돈[푸르동]』氏의 財産論과 比較하여 極히 不徹底할 터이나 余의 感想을 좀 添付코저 합니다.

最後에 한 말삼 더할 것은 東亞日報의 主幹이신 張德秀형의 『……될 수 있는대로 速히 써 보내시면 感謝하겠나이다.』라는 데모크리시[Democracy]의—그야말로 現代式 催促書에 對하여 너무 遲晩하게 되야 未安스럽다는 謝罪의 말씀보다도, 余의 素來 懶怠한 惡習을 偶然히 暴露하게 된 것이 自愧千萬이외다. 그러나 이번 일에 對하여는 全히 懶怠性에만 基因한 것이 아니라, 料表의 身體不健—月餘동안 頭痛이 滋甚함으로 因하여 自然히 食言을 아니할 수 없게 事情이 되엿사오니, 常愛하시는 厚情으로 河海가치 寬恕하시기만 切望할 뿐이외다. (一九二一年 六月 二十二日 早大 圖書館에서)